

객관적인 능력 평가할 수 있는 인증제도 '필요하다'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보검색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PC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쉽게 온라인에 접속하여 정보검색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검색이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을 벗어나 일반인들 사이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정보검색을 전문적인 기능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이다. 전문 검색인의 발굴 및 평가 체제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편집자>

최경자 / 도원컨설팅 정보검색팀

요 객적인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대해 관심이 높고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이용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이 인터넷이나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절한 검색엔진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적합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또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검색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 줄 수 없으면 능력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가 없다. 개인의 정보검색 능력을 객관적으로, 공적 기관에서 인정해 준다면 개인 자신의 실력 입증은 물론 근무지에서도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각 개인이 정보검색 실력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보검색사 시험의 필요성이 더욱더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인터넷정보검색사시험과 정보검색사인증시험을 1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본 검색능력과 전문 검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한다.

이밖의 다른 기관에서도 정보검색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정보검색을 위한 교육기관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정보검색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보검색 전문인에 대한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한걸음

앞서 있는 일본의 인증시험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서처시험'으로 알려진 데이터베이스검색 기술자인정시험이 실시된지가 10년이 지났다.

'데이터베이스 검색기술자 인정시험'

일본에서 서처시험이라고 알려진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술자 인정시험'은 사단법인 정보과학기술협회(이후, 협회 또는 INFOSTA라고 불림) 주최로 1985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타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술자 인정 시험'이 일본에서 실시되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정보과학기술협회의 온라인 정보검색사용자회(OUG)의 생활 과학회의 주사(主査)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鈴木搏道(국제의학정보센터소속)가 검색전문가의 양성, OUG의 활성화, 나아가서는 당 협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서처의 능력인정 시험과 같은 것이 실시되는게 좋겠다고 당시 일본 도큐멘테이션협회(정보과학기술협회의 전신)의 中村幸雄회장에게 설명하였다.

이 제안은 OUG의 간사회에 상정돼 간사들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실행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는지 좋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서처는 의약, 전기, 비즈니스, 특허 등의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또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시스템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동일한 문제의 시험을 실시할 것인가?', '수험자 전원에게 공평한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을까?', '실기시험을 치르지않고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OUG 관계자들은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자격시험을 실시했으면 하는 외부의 움직임도 있어서, 여러 제반 여건들이 반영되어 이 협회에서 정보검색자격제도(가칭) 검토위원회가 조직됐고, 그후 1985년 7월에 데이터베이스 검색기술자인정시험 실시위원회로 개칭되게 되었다.

제1회 시험은 일단 2급 시험정도의 내용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어떤 시험이 실시될 것인가",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 주최로 과학기술처 등의 관계기관과 보도기관 등에서 여러번 설명회가 열렸다.

어떤 형태든 처음 실시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떤 시험문제가 나올 것인가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합격선은 어느 정도일까?', '시험을 위한 강습회 개최와, 텍스트도 발행되었으면 좋겠다', '사회·경제 등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는가?', '수험료를 받으니까 근사한 증서를 발급했으면 한다', '금년이 2급 시험이라면 1급 시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1급 시험은 2급시험 합격자만 시험칠 수 있는가?'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처음인 탓에 참고자료가 없어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시험문제가 출제된 제 1회 시험은 1985년 11월 10일에 동경전기대학에서 실시되었다. 수험자 수가 223명이었고, 합격자수는 140명(합격률 62.8%)이었다.

첫시험은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도 다수 응시해 합격률이 꽤 높았다. 제 1회 시험문제가 공개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타당한 문제였다고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PC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당시에는 전용단말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았다)과 공급업체 또는 디스트리뷰터들에게만 유리했다는 등의 이의도 많이 제기됐다.

다음해인 1986년에는 1급 시험도 실시, 2급 합격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려 했으나 1985년 제1회 시험과 마찬가지로 홍보가 부족해 1986년에는 2급 합격

(표 1) 1986년 이후 일본의 정보 기술사 시험 응시 및 합격자 현황

1급							
연도	지원자	합격자	남녀비율		합격자 평균연령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86	90	19	15	4	39.7	42.0	31.8
1987	79	18	6	12	33.6	39.3	30.8
1988	80	19	11	8	36.9	41.7	30.4
1989	104	20	11	9	35.2	38.5	31.0
1990	120	24	16	8	38.2	42.4	29.8
1991	126	24	13	11	35.9	39.0	32.3
1992	181	23	13	10	34.4	36.1	32.3
1993	152	19	9	10	34.6	40.4	29.7
1994	92	13	4	9	35.2	39.5	33.3
1995	95	13	5	8	33.5	37.1	31.1

2급							
연도	지원자	합격자	남녀비율		합격자 평균연령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85	223	140	77	63	32.9	37.3	27.5
1986	219	125	72	53	33.7	37.6	28.4
1987	490	224	113	111	32.7	36.5	28.8
1988	560	241	115	126	32.7	37.6	28.2
1989	816	301	126	175	32.4	37.3	28.9
1990	1,050	354	171	183	30.9	35.2	26.9
1991	1,055	460	209	251	30.5	34.1	27.4
1992	835	302	137	165	30.2	33.5	27.5
1993	694	232	101	131	29.8	33.7	26.8
1994	719	269	114	155	31.7	36.4	28.3
1995	704	262	116	146	31.0	35.3	27.6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1987년 부터는 2급 합격자에 한해서만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1급은 1차가 필기시험이며, 그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인 면접을 보는 것으로 하였다.

필기시험 시간은, 처음에는 전반 120분 후반 30분이었으나, 후반시간과 휴식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나와 1987년 제 3회부터 현재와 같이 전반 120분, 휴식 20분, 후반 40분으로 되었다. 시험장도 나고야, 후쿠오카등이 추가 되었으며 수험자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서쳐시험이 매년 지속됨에 따라, 수험자가 증가하고, 서쳐를 위한 보통의 강습 외에도 특별히 이 시험을 대비하는 강습회가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수험자 그룹이 모여서 실시하는 시험을 위한 스터디모임도 생겨났다.

1급, 2급 합격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합격자들의 모임도 생겨났다. 동경에서는 1987년 11월에 '서쳐회'가 설립되어, 지식·기능의 향상이나 회원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서쳐시험의 보급에 힘이 되고 있는 활동으로 PC통신을 통한 시험관련 정보의 보급이 있는데, 정보과학기술협회에서도 시험관련자료를 니프티씨브 게시판에 올려주고 있다.

서쳐시험이 세간에 알려지고 나서, 2급 시험 수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서쳐시험을 치려는 경우와 그 밖의 정보분야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 모두 유효한 정보검색 기초능력 인증시험 실시 여부가 검토되었다. 최초의 정보검색기초능력시험은 1993년도에 실시되어, 매년마다 수험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

서쳐시험의 내용과 실시방법

이 인정시험은, 온라인·데이터베이스검색기술자(서쳐)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 및 기술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 능력에 대응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과 함께, 그 자질 및 지식과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2〉 최근의 시험 일정 및 방법

구분	1급	2급
일시	제1차 12월 첫번째 일요일 오후 약 3시간 제2차 2월 하순 일요일	12월 첫번째 일요일 오후 약 3시간
장소	제1차 동경, 나고야, 오오사카, 후쿠오카 제2차 동경	동경, 나고야, 오오사카, 후쿠오카
수험료	10,000엔	6,000엔
시험방법	1차 필기 2차 면접	필기

■ 수험결과의 통지

1급 제 1차: 다음해 1월 하순, 수험자 전원에게 합격·불합격을 문서로 통지

2급 : 다음해 2월 하순, 수험자 전원에게 합격·불합격을 문서로 통지

1급 제 2차: 다음해 3월 중순, 수험자 전원에게 합격·불합격을 문서로 통지

■ 인정증의 교부

합격자에게는 '데이터베이스검색기술자 1급 또는 2급 인정증' 이 교부된다.

■ 수험신청방법 및 신청접수기일

수험신청서의 접수기간은 매년 10월1일~31일 사이로 하며, INFOSTA로 우편송달해야 한다. 수험신청서는 INFOSTA에 청구하면 송부해주고 있는데, 실비가 필요하다.

시험 영역 및 내용

■ 시험 영역

- (1) 전산기(단말기)와 통신,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과 기능
- (2) 정보검색의 기술에 관한 지식과 기능
- (3)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식
 -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관한 지식
 -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식
- (4) 정보의 유통 및 활용에 관한 지식과 방법
- (5) 주제분석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 (6) 검색에 관한 영어 능력

■ 시험 내용

〈표 3〉 정보검색기술사 시험 분야와 세부 내용

(1급)
a. 단말기의 종류와 기능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b. 단말기의 하드웨어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c. 통신 기술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그의 응용 능력 (예 : 회선, 전송 속도, 모뎀, 통신 소프트웨어 등)
d. 전산기 네트워크 및 그의 구축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2급)

- a. 단말기, 통신의 시스템 구성의 개요에 관한 지식
- b. 단말기, 통신의 기능, 이용법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

〈표 4〉 정보 검색의 기술에 관한 지식과 기능

(1급)

- a. 검색 기술 일반에 관한 지식과 검색법의 선택, 평가 능력
- b.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대한 검색 기법에 관한 지식과 그의 응용 능력
- c. 검색 주제에 대한 파일의 선택, 평가 능력
- d.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한 지식과 그의 이용 선별 능력 (검색 COMMAND, 출력 방식 등)
- e.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이용 비용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관한 지식

(2급)

- a. 일반적 용어의 지식
- b. 각종 검색 COMMAND에 관한 지식
- c. 검색식의 작성 방법에 관한 일반적 지식
- d. 분류, 시소러스, 키워드 등에 관한 일반적 지식

〈표 5〉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식

-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관한 지식

(1급)

- a. 데이터베이스 작성법 및 유통기구에 관한 일반적 지식
- b.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분류법, 색인법에 관한 지식과 일반 응용 능력

(2급)

- a.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일반적 지식
- b.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에 관한 지식

- 개별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식

(1급)

- a. 개별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관한 지식
- b.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형식과 데이터 항목 및 항목의 기록 방법에 관한 지식
- c.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분류 및 색인에 관한 지식

(2급)

- a. 개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성의 이해
- b.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관한 지식

〈표 6〉 정보의 유통 및 활용에 관한 지식과 기술

(1급)

- a. 유통 채널 및 매체의 선택 능력
- b. 유통 코스트에 관한 지식과 판단 능력
- c.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 d. 검색 요구자에 관한 인터뷰 기술

(2급)

- a. 정보 관리에 관한 일반적 지식
- b. 정보의 전달, 유통에 관한 일반적 지식
- c. 정보의 전달, 유통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 지식
- d. 정보의 전달, 유통에 이용되는 기기, 매체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 지식

〈표 7〉 주제 분야에 관한 지식과 그의 응용 능력

(1급)

- a.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일반적 지식
- b. 특정 기술 분야에서 서치 에이드에 관한 지식과 그의 선택, 이용 능력
- c. 특정 기술 분야에서 검색 요구의 분석 능력
- d. 특정 기술 분야에서 검색 출력의 선별 능력

(2급)

- a. 검색 결과를 판정하는 능력
- b. 각각의 분야(주제 영역)에서 서치 에이드에 관한 지식과 이용하는 능력

〈표 8〉 검색에 관한 영어 능력

(1급)

- a. 매뉴얼의 독해력
- b. 데이터베이스 출력물의 독해력

(2급)

- a. 데이터베이스 출력물의 독해력

지금까지 출제된 시험문제는, 시험실시 다음해의 회지 4월호에 게재된다(시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동양경제신문사의 『온라인·데이터베이스·디렉토리96』에는 매년, 시험문제 및 해답에가 해설과 함께 실려있다. 문제해답을 포함한 수험대책 책 가운데 권할만한 것으로는 『서치시험 경향과 대책-데이터베이스 검색기술자인정시험1급·2급』(출판사: 日外어쏘시에이트)이 있다.

서치시험의 장점

현재 일본에서는 '서치시험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서치시험에 합격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서치시험을 치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사이다.

일본의 INFOSTA가 1993년에 1급 및 2급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해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합격해서 좋은 점은 다음과 같다 :

- 1위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
- 2위 자신감(1위동수)
- 3위 공부가 됐다.
- 4위 다른 서처와의 교류
- 5위 검색의 폭이 넓어진다.
- 6위 주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에 대한 자극, 능력의 측정, 수당의 대상, 자신없는 분야의 명확화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상의 앙케이트에서 취업에 관한 메리트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일본에서 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대학등에서 곧 승급, 승격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합격으로 인해 그 사람의 실력을 상사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 긴 안목으로 봤을때 유리한 대우를 받을 요인은 있다. 또한, 언젠가는 기업에서 이 시험 수험료를 대신 부담해 줄 것이며, 회사에서 자격수당 등이 지불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처를 둘러싼 환경변화

오늘날 일본에서 서처를 둘러싼 환경은 변화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된다.

첫째, 상용데이터베이스에 비해 CD-ROM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게이트웨이서비스가 다양해져, 일반 유저가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메뉴방식으로도 제공되고 있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셋째, CD-ROM에 의한 데이터베이스검색이 증가해서, 지금까지 서처에게 의뢰해온 엔드유저가 직접 정보 검색을 시작하게 되었다.

네째, 상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서비스시스템이 엔

드유저 서처의 검색용 인터페이스로 쉽게 유저를 끌고 있다.

다섯째,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증가하고, 검색도 용이하다.

이러한 변화요소들이 일본에서 서치시험 및 서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 '서처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질 것인가', '정보기술의 진보에 따라 앤드유저가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되면, 서처는 필요없지 않을까' 등의 우려가 현재 제기되고 있다.

이 협회가 1989년에 일반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앙케이트 [21세기 초의 정보과학기술 예측]중에 21세기의 서처 이미지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의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앤드유저 서처의 보급에 따라 서처의 지위는 쇠퇴한다. - 응답수 90
- 2) 앤드유저서처의 보급에 따라 단말오퍼레이터는 불필요하게 되나 앤드유저를 위한 컨설턴트의 수요가 증가한다. - 응답수 30
- 3) 21세기의 서처 지위는 향상하며, 유망한 직업이 될 것이다. - 응답수 97
- 4) 기타 - 응답수 5

이상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한 PC조작과 자주 사용되는 코멘드나 알고있는 정도의 서처는 불필요해질 것 같다.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적절한 검색식을 작성하고, 건수가 많거나 적을 경우에도 잘 대응할 수 있으며, 그 분야의 지식에 기반을 두고 검색결과가 가공도 할 수 있는 우수한 서처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일본 보다 10여년 늦게 정보검색사 시험을 시행하려고 하고있는 우리는, 시험주최자 측이나 수험자들 모두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위에서 살펴본 일본 정보과학기술협회의 여러자료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좀 더 유능하고 경쟁력있는 정보전문가를 키워나가갈 수 있도록 정보검색분야의 기반을 잡아가야 하겠다.